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

심사 결과 공고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수작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 9. 30.

(재)순천문화재단 이사장

1. 심사개요

- 심사일시 : 2025. 9. 26.(금) 15:00 ~ 21:00
- 심사방법 : 외부 전문 심사위원 서면심사(3인)
- 접수결과 : 총 201건 접수
- 심사결과 : 총 20건 선정

2. 심사결과

연번	접수자명	핸드폰번호 (뒷자리)	편지제목	수상구분
1	김O수	4421	순천에 묻힌 이름 없는 삶에게	대상
2	김O재	5251	달을지 모를 편지	최우수상
3	김O현	6531	그날, 봄날의 햇살을 남긴 당신께	우수상
4	박O연	5173	연기의 결을 따라, 당신께	입선
5	정O선	2693	총소리 사이, 아이와 당신을 기다리며	입선
6	배O주	8318	영원한 스물다섯일 아버지께	입선

7	장O원	7470	오라버니에게	입선
8	박O경	7056	어두운 시간 속의 기억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입선
9	전O근	3498	순천역 광장, 갈대 바구니를 든 소녀에게	입선
10	전O나	2390	당신들을 기억하며	입선
11	김O현	6522	그날, 순천 농림중학교에서 무릎 꿇린 당신께	입선
12	강O아	8692	엄니 보십시오.	입선
13	박O환	3123	그날 밤, 담배 한 개비와 함께 건네주신 말씀	입선
14	황O순	4921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민중의 편에 섰던 김 지회 중위님께	입선
15	김O은	0225	어머니께 전하는 안부	입선
16	김O숙	6782	그날, 죽은 친구에게 용서를 빌며	입선
17	김O호	9317	빨치산으로 불리울 형에게	입선
18	백O현	6004	공학과 역사의 교차로에서 만나는 편지	입선
19	이O정	7807	그날, 순천 신전마을 이웃집 마당에서 마주한 너에게	입선
20	엄O영	7342	당신을 기억할게요!	입선

3. 심사총평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 우수작 심사
이번 「1948년, 시간을 건너는 편지쓰기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0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응모작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에서 참여해, 여순10·19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품들은 당시의 아픔과 희생을 오늘의 시선으로 되살려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기억을 현재의 문제로 끌어와 함께 해결해 나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다소 피상적으로 머무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여순사건의 비극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각자의 삶과 시선 속에서 담아낸 역사의 조각들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아픔을 기록하고 전하려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어진 관심과 기록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문학적 완성도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글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4. 향후 일정

○ 여순사건 추모전야제 우수선정작 시상식 : ‘25. 10. 18.(토) ※필참

5. 문의 : (재)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담당자(☎ 061-746-2912)